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 사사기 13:1-9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 6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 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 부부

오늘부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시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때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독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나 세레 요한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한시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나실인은 시신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셔서 천사를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처음 드린 기도

그런데 왜 천사는 마노아가 아닌, 그 아내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는 것은 아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남편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천사가 처음부터 마노아를 찾아갔거나 둘이 같이 있을 때 왔다면 두 번 내려오지 않아도 됐을텐데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찾아가는 바람에 천사도 번거롭게 두 번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남편인 마노아보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확실히 마노아보다 그 아내가 더 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보다 월등히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을 아이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여겼을 뿐,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찾아간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천사에게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삼손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마노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천사를 그 아내에게 보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잊은 이스라엘

예전에 다니던 교회 특별새벽기도회 때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기드온 이야기를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은혜도 입을 수 없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사사기를 삼손 전까지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이라는 사사기의 공식은 입다 때에 거의 깨질 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나중에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회개조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과 구원의 거듭된 반복 속에 죄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블레셋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으면서도 자신들의 비참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이 블레셋이 내리는 은총 속에 하루를 무사하게 넘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사무엘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자신의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나 선행과 같은 사람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자 소망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찾아감으로 마노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항상 살아계시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에베소서 2:1-10을 읽겠습니다.

❖ 에베소서 2:1-10

-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구원 받기 이전의 신자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노아의 가정과 같이 영적으로 죽어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방의 풍습을 충실히 따랐던 것과 같이, 구원 받기 이전에 신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순응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기 보다는,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세세토록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 공은 오로지 죽은 사람을 살린 구원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

에베소서 4:17-24을 읽겠습니다.

❖ 에베소서 4:17-24

-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은 불신자들과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순간에 집착하며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아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생명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내어 맡기며 더러운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불신자의 특징은 구약에서 생명이 없는 우상을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분별력과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없는 우상과 같은 무지함과 무분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가질 수 없는 영생의 소망과 더불어서 선과 악, 참과 거짓, 의로움과 불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풍조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살아 있다는 증거

저는 지난 주에 휴가를 받아서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당일치기로 잠깐 다녀오는 바람에 죽다 살았습니다. 왕복만 10시간이 걸렸고 가셔도 계속 차로 다녔기 때문에 12시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는 가족들 몰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당일치기로 거제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녀온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썼던 일기를 보니 “거제도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해낸 것입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감격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호흡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영향력이 상실된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장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짐으로 삶의 의욕을 잃으면 되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2시간 운전과 같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거나,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고 스스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살아 있음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 있음은 분별력과 민감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지만 비교적 고가의 물건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애지중지합니다.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아침마다 차에 타기 전에 혹시 누가 밤새 차를 긁지는 않았는지 차 주위를 한 바퀴돌리보면서 외관을 점검해보거나, 비싼 케이스를 끼워 보호합니다. 새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둔감해집니다. 뽑은지 얼마 안 된 새차를 타고 다닐 때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도 역장이 무너지지만 수십 년 탄 차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이게 지금 부딪혀서 찌그러진 건지 원래 그런 건지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중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고 그대로 방치해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빛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상관 없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불신자보다 피곤한 것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를 몰 때에 혹시나 작은 흠집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느라 피곤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피곤을 무릅쓰고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거룩과 방탕,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의 가치관 사이에서 감각을 잃지 않고 지혜롭고 민감하게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시편 34:18을 읽겠습니다.

❖ 시편 34:18

18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새번역에서는 “낙심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사람,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하시며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 비교적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아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 자신이 과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아무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거나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둔감해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보이는 현실을 당연히 여기거나 체념하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왕처럼 군림하는 현실에 순응하지 마시고 역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우에 따라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 없는 사람들,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비극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자에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

시고 회복을 위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가는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나이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심령을 새롭게해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의 상함과 영적인 고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기도로 이겨내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자신이 육체로는 살아 있으나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2. 영적인 죽음이나 깊은 잠으로부터 특별한 사건, 고난, 말씀 등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깨어난 경험이 있나요?
3.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써 민감성과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